

## 의심·확진자 익명으로 이동 경로 자발적 공개

### 포스텍, 셀프 경로지도 프로젝트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창의IT융합공학과 박주홍 교수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와 확진자가 익명으로 참여하는 셀프 경로지도 프로젝트인 'COVID: Shareto Survive(코로나19: 공유를 통한 생존)'를 운영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www.sharetosurvive.org)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 감염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자발적으로 지도에 자신의 증상과 이동 경로를 공개하도

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익명이다.

프로젝트는 우리말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등 9개 국가의 언어로 번역, 공개돼 있으며, 위치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개된 뒤 바이러스 반감기(7일)와 유사하게 사라지도록 설계돼 있다.

의심자나 확진자는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방문지를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도 홈페이지 방문만으로 어떤 증상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방문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외는 확진자 수만 알 수 있을 뿐, 우리나라처럼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지 않아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고,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도 이를 알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철저하게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있지만, 확진자의 검사결과나 경로 확인이 바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확진 이후의 정보만 공개해 실시간 감염경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팀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

익명성 때문에 거짓 등록이나 악의적인 이용의 가능성도 고려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이 사용자 패턴을 파악하고 있으나 소수의 걸러지지 않은 악성 데이터를 고려하더라도, 연구팀은 감염원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봤다.

연구팀은 해당 데이터를 통해, 익명으로 공유한 데이터가 실제로 감염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오류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개발할 예정이다.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